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7월 9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9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7. 8(목)	담당부서	에너지혁신정책과
담당과장	윤요한 과장(044-203-5150)	담 당 자	이연 사무관(044-203-5125)

제30차 한-호 에너지자원협력위 개최

- 양국 에너지정책 공유 및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·자원분야 협력방안 모색 -
- 양국간 「저탄소기술 협력관계」 구축 방안 구체화해 나가기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7.8(목)~7.9(금)** 양일간 **호주 산업과학 에너지자원부**와 화상으로 **제30차 한-호 에너지자원협력위를 개최**함

◇ (참석자) 한국-호주 정부 및 연구기관 관계자 등 50여명
- (한국)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(수석대표), 에경연, 에공단, 광물공사, 지자연 등
- (호주) 션 설리번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차관보(수석대표) 포함 대표단 등

* 한-호 에너지자원 협력위(실장급)는 1양국간 에너지.광물자원분야 공식 협력회의체로 1980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음(제29차 협력위는 2019년 캔버라에서 개최)

□ 제30차 한-호 협력위에서는 한국의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과 호주의 「저탄소기술 성명서」 등 **양국의 에너지정책 현황을 공유**하고 저탄소 기술, 핵심광물, 천연가스 등 **에너지·자원분야 협력 방안**을 모색함

○ 특히, 한-호 양국은 금번 호주정부 측에서 제안한 **「저탄소기술 협력관계」 구축방안**에 대해 향후 **실무 차원의 협의와 검토**를 거쳐, **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**해나가기로 함

* 호주 정부는 한국정부 측에 청정수소·암모니아, CCUS, 그린철강 등 저탄소기술 공동 R&D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저탄소기술 파트너쉽」 제안

○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분야가 광물, 천연가스 등 전통적인 자원협력 뿐만 아니라 **수소, 재생에너지, ESS, CCUS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확대**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□ 양국은 **탄소중립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**에 따라 향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니켈, 리튬, 희토류 등 **희소금속분야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**하고,

* 핵심 광물 수요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 및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'40년까지 '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(IEA, '21.5월)

○ 이를 위해 실무차원의 **'핵심광물 협력 대화'**를 통해 **공동 자원개발 프로젝트 및 R&D 발굴** 등 **상호 협력방안을 구체화**해 나가기로 함

□ 또한 호주는 한국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(LNG) 수입국으로서, **안정적인 LNG수급**을 위해 **상호 호혜적 투자 및 협력을 지속**해나가기로 함

* 한국은 '20년 호주에서 LNG 약 797만톤 수입(전체 LNG수입 대비 비중 19.9%)

□ 아울러 **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**(한국측 수석대표)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 지난해 말 **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**에 이어,

○ 올해 5월 말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**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**하여 **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검토중**이라고 언급하면서

○ 이를 토대로 산업, 수송, 에너지 등 **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계획**이라고 덧붙임

□ 호주 정부 역시 **탄소중립 달성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**을 위해 **향후 저탄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**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,

○ 호주의 **에너지·자원 분야 주요 파트너인 한국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**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이연 사무관(☎ 044-203-51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